

씨 참여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홍국 박상중 110-734 서울시 종로구 인곡동 175-87 인국빌딩 5층 전화: 723-8300 / 팩스: 723-8355
천안안 하호텔: PSPD, 나무나라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시민의신문 이은영
발 신 참여연대(홍보담당 : 723-4254)
제 목 한반도가 세계유일의 지뢰매설지역이 될 수는 없다
날 짜 1997. 9. 16. (총 2 쪽)

성명서

한반도가 세계유일의 지뢰매설지역이 될 수는 없다
- 정부는 세계지뢰금지협약 체결을 지지해야 한다 -

지금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는 한반도를 유일하게 지뢰사용 가능지역으로 만드려는 미국 정부와 세계 98개국 정부가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지뢰매설문제는 이제 전세계와 두나라 정부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비무장지대에는 백만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지뢰에 의한 인명피해가 매년 3만여명에 달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뢰는 전인류에 대한 무차별적 전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지뢰를 제거하는데 1천1백년의 기간과 3백30억달러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깝게는 인도지나의 경우 전쟁종식 이후에도 막대한 경비 때문에 지뢰제거를 하지 못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지속적으로 살상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쟁중 미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적의 화기가 아니라 미군이 설치한 미국산 지뢰였으며, 실제로 월남전의 경우 지뢰로 사상한 미군 6만4천명 가운데 90%가 미군이 매설한 지뢰 또는 미군이 빼앗긴 지뢰부품으로 만들어진 부비트랩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지뢰는 전시나 평시나 민간인 군인을 불문하고 무차별적 살상을 할 수 있으며 그 살상을 막는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드는 야만적인 무기인 것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한국정부의 주장과 달리 지뢰사고는 계속 발생해 왔으며 심지어 1980년 시위집압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한국정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뢰의 이러한 비인도적인 살상능력 때문에 지구촌에서 지뢰를 완전히 철거시킬 포괄적인 지뢰금지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협약은 모든 나라들이 지켜야 하는 인도주의적 약속으로서 각국 정부가 지지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반인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의 무기인 지뢰를 수백만개씩이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무고한 인명피해와 아울러 막대한 제거비용도 결국 후대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지뢰매설을 허용하는 것은 당대의 무책임한 판단이다. 더구나 인간의 생명과 인류평화를 지키기 위해 보편적 지뢰사용금지협약을 추진하는 세계 절대다수의 국가에 맞서 한반도에서만 지뢰매설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양심과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경박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한국정부는 지금 오슬로에서 지뢰금지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나라의 정부와 민간단체들과 뜻을 같이 하여야 하며, 올해 12월 오타와에서는 예외없이 지뢰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비준하도록 해야 한다.

1. 우리는 비무장지대가 비무장지대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한국정부가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점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므로 조속히 실태조사에 나서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1997. 9. 16.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